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하자

전주영생고 권승호 교사 '학부모님께 보내는 가정통신문' 출간

자기주도학습과 한자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전주영생고 권승호 교사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과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을 제시한 책을 출간해 화제다.

'학부모님께 보내는 가정통신문'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프레스아이에 56회에 걸쳐 연재한 칼럼들을 재편집한 결과물이다.

권 교사는 학습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엉터리 부모 역할이 우리 교육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공부에 쫓겨 자칫 학생들도 안쓰럽지만 남이 시중에 가니까 지게 지고 시중에 가는 사람처럼 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남들이 사교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교육만 강요하는 학부모님도 안쓰러웠다고 하면서 "이건 아니잖아!"를 위치다가 펜을 옮겨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몽사몽 상태로 강의 듣기, 책과 노트에만 적을 뿐 머리에 남지 않음,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없이 남 따라서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기, 비싼 과외선생 만나면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 학생들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분석하는 저자는 학습법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성적 불가능하고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랜 시간 대학입시와 공부법에 관해 연구하였고 올바른 학습법에 관한 책을 저술해온 권교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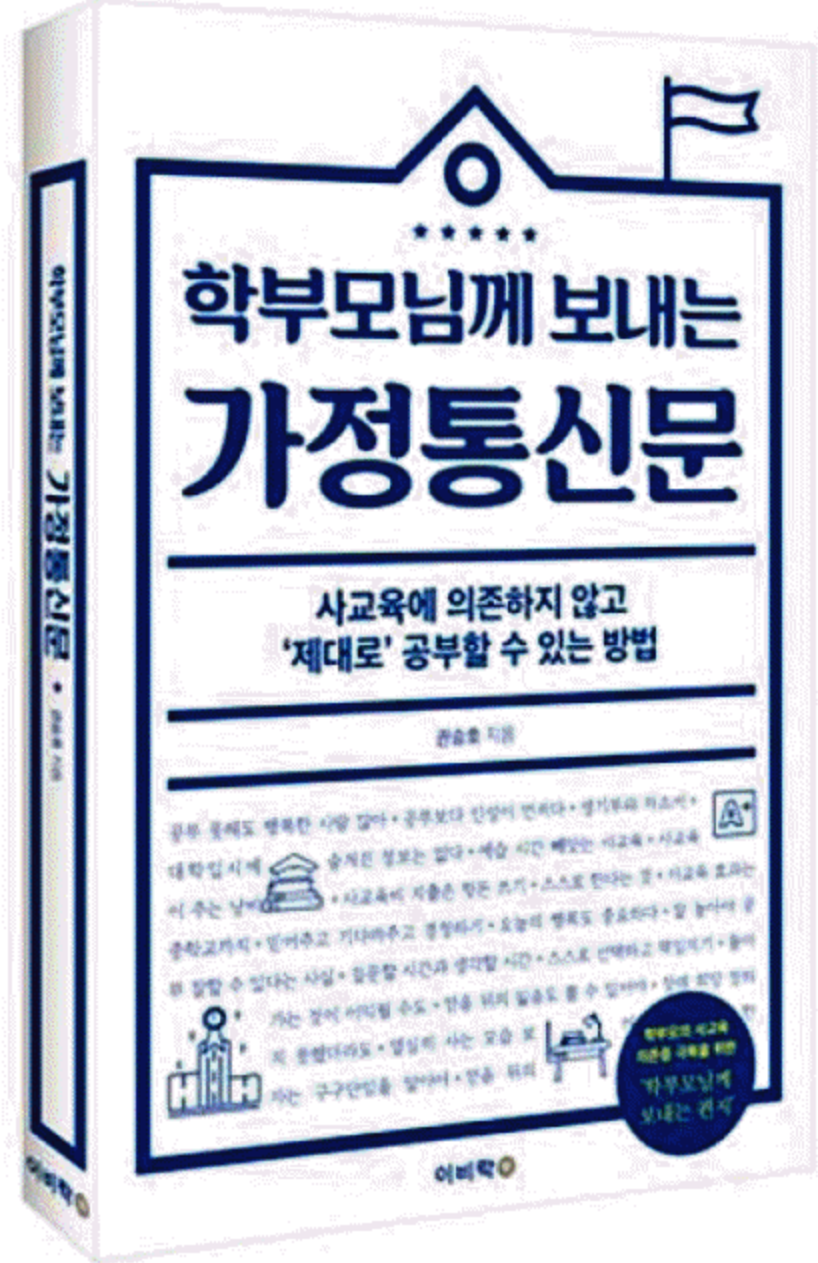
"사교육은 절대 성적을 향상시켜줄 수 없고 성적 향상은 자기주도학습에서만 가능하다",

"자기주도학습으로 뜻을 이룬 제자 엄청 많고 사교육 때문에 주저앉은 제자들도 무척 많다", "아이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준다면 오�히러 불행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덧붙인다. "공부 못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대학입시보다 대학에서의 공부, 대학 졸업 이후의 공부가 더더욱 중요하다" "미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다"라고.

교단에서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저자는 공부의 또 다른 말인 '학습'의 습 자가 '익힐 습(習)'자임을, 학문의 '문'자가 '물음 문(問)'자임을 주목해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익히기, 생각하기,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를 즐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라. 휴식 충분히 취하도록 하고 잘 놀고 충분히 자도록 도와주며 생각하고 익힐 시간을 주어야. 용서해주고 칭찬해주고 여행 떠나보내고 타고나지 않은 재주 인정해주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독서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하라. 용서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믿음과 사랑을 함께 보아라"

잘못된 학습법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려야만 한다고 외치는 권교사는 "졸업한 제자들을 통해서 공부 못해도, 영어 수학 못해도, 공부 늦게 시작해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서 "역지로 되는 것 아니니까 스스로 공부하려 달릴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도와준다고 하는 일이 기대와 반대로 싫어



하도록 만들고 짜증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사교육 받게 되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오�히러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분명한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집필을 시작하였다고 말하는 저자는 자녀와 어떻게 행복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작은 의견들이 변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행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장은성기자

고독한 거인 최치원, 무용극으로

정읍시예술회관서 19일 창작 무용극 '춤추는 무성서원' 첫 선

정읍시립국악단의 창작 무용극 '춤추는 무성서원-최치원, 연꽃에서 놀다'가 오는 19일과 20일 오후 4시에 정읍시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작품은 당나라에서 인정받은 불세출의 천재가 자신의 출세가 아닌 암운이 드리운 고국의 백성을 위해 쓰고자 했던 최치원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화려한 춤사위와 구성진 판소리로 펼쳐 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최치원을 그 주인공으로 하는 민중 신라와 백제의 고대 무용을 판타지적으로 부활시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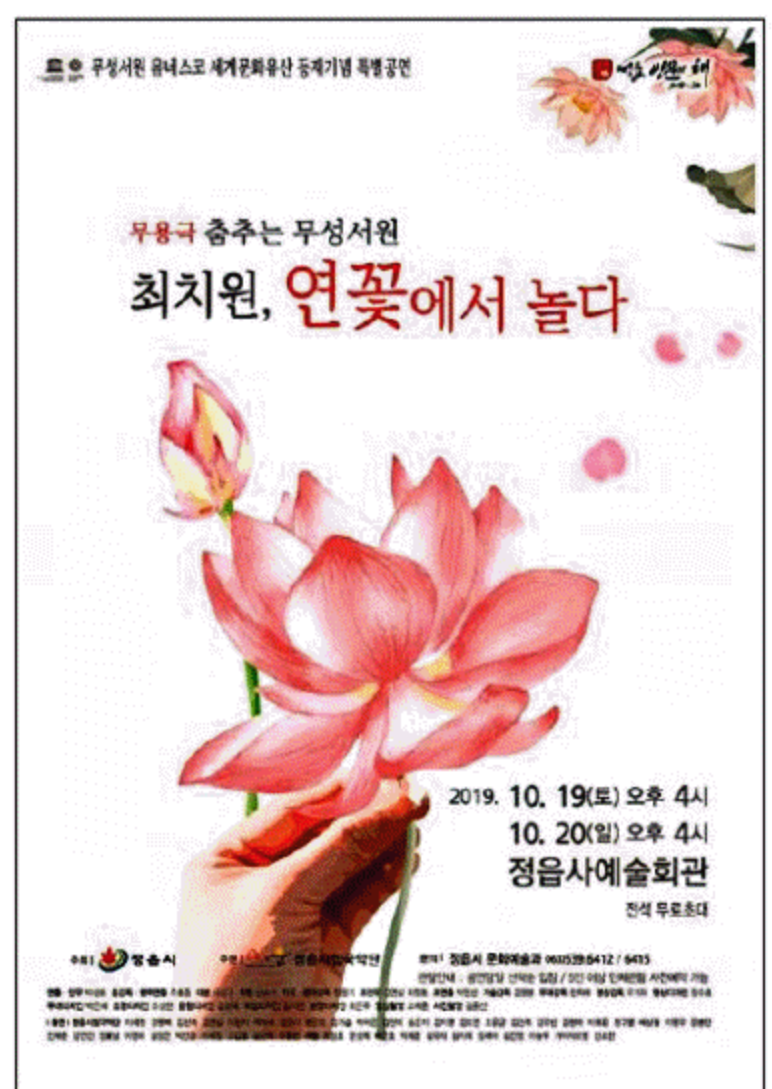
최치원이 당대 공원의 모습을 시로 읊은 '향악잡영(鄕樂雜詠)'의 내용은 기상천외한 상상력이 투영된 극적 무용으로 펼쳐진다.

또한, 무용극의 내용 전달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 전기의 학자인 송세림을 이야기꾼인 극 중 화자로 등장시킴으로써 무용극을 보는 재미를 더했다.

피향정은 진흙탕에 파여난 연꽃처럼 어지러운 세상을 아름답게 해줄 희망을 찾아 고뇌했던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번 작품 제작을 위해 전통공연의 마이다스 연출가인 주호중 국악단장의 총지휘를 맡았다.

또 독보적 무용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박성호 연출가가 연출과 안무, 전방위 작가이자 청와대 공연기획자로 활동하는 사성구 교수가 대본을, 판소리의 혁신적 역사를 써 내려가는 한승식 교수가 작곡을, 뮤지컬 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정원기 작곡가가 음악을 맡았다.

시 관계자는 "어둠과 암울한 난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위대하고 고독한 거인 최치원의 시대정신을 기발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담아냈다"며 "화려하고 유니크한 춤사위와 구성진 판소리로 펼쳐낸 공연에 많은 관람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람은 공연당일 선착순 무료입장이며, 5인 이상 단체관람의 경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공연 문의·예약은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3-539-6412, 6415)으로 하면 된다.

/정을=김대환 기자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아름다운 한국의산 한자리에

한국산악사진가협회, 태권도원 국립박물관서 '한국의 산' 전시회 개최

산과 사진을 좋아하는 사진작가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 협회가 태권도 성지인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국립박물관에서 '한국의 산'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태권도진흥재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7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태권도원 국립박물관 지하 1층 원형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90여 명의 산악사진 전문작가들이 참여하는 사진전은 '백두산~지리산' 까지만 주제로 백두대간에 지리한 한라산을 비롯해 설악·지리·덕유·가야·백두산 등 유명산의 사계와 일출, 일몰을 담은 사진을 선보인다.

150명의 전문작가와 3천여명의 캠퍼원으로 구성된 한국산악사진가협회는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 평창동계올

림픽대회 등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전시회를 열어오며 전 세계인에게 한국산의 아름다움을 선보여 찬사를 받았다. 또한, 2008년 창립 이후 국립공원과 유명산에서 100여 차례의 산악 전시회를 여는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협회는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덕유산 생태계복원, 아고산대 자생종 식재작업,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 산 만들기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윤승 이사장은 "산과 사진을 사랑하는 회원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존에 앞장서 후손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한국의 산을 찾아 묵묵히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예술의전당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작 2편 공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작 두 편이 익산 예술의전당을 찾는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2일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오페라, 발레 in 콘서트', 19일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바디콘서트' 공연이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12일 오후 5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오페라, 발레 in 콘서트'가 공연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인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이자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의 공연 연주를 전담하는 독보적인 연주단체이다.

지휘자 류성규와 현재 국내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베이스 바리톤 우경식이 함께 출연한다. 특히 오페라와 발레의 명곡들을 엄선했던 연주와 성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발레곡으로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오페라곡은 파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카르멘의 아리아를 만나볼 수 있다.

19일 오후 5시에는 현대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바디콘서트'를 선보인다.

합창과 비보잉은 물론 발레, 현대무용 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일반관객을 위한 현대무용 입문서'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현대무용의 대중화를 이끈 작품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 인간의 몸과 춤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작 등을 통해 전통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공연의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관람 가능 연령은 8세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